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헤겔에 따르면 ‘감각’은 외부 자극을 통한 인상이고, ‘감정’은 인상에 대한 반성이다. 가령 지네를 감각하여 만들어진 인상을 통해 자극을 받은 나는 무규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인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지네를 대상으로 공포라는 ‘정서’가 생겨난다. 공포와 같은 정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헤겔은 설명한다. 한편 공포와 달리 인지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감정도 있다. 괜히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특정한 대상이 없는데도 기분이 우울한 날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자연적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어떤 물체에 발을 짚어서 고통을 느낄 때를 상상해보자. 그 고통은 특정한 물체에 대한 감각이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인지 와 평가도 없다. 요컨대 기분은 대상이 없는데도 자연적 기질에 의한 감정이라면 고통은 대상을 지향하지만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감정이다. 데벤테에 따르면 기분이나 고통은 정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감각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감각은 헤겔의 체계 속에서 ‘서로 대립해 있는 세계의 발견’, ‘주체와 객체의 즉자적 구별’ 따위로 설명된다. 즉, 감각이란 대상을 자기 속에서 발견할 때 발생한다. 대상 내부의 특수화된 규정들을 자기내부의 보편성 속에 정립하므로 정작 순수한 감각 단계에서 나와 대상은 구별되지 않는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의식적인 활동은 아니다. 헤겔은 ‘신체화’ 개념을 도입하여 감각 개념을 구체화한다. 신체화는 감각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는 고통처럼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냥감을 사냥하는 동물의 본능은 무의식적 신체화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면서 나는 의식적 감정, 즉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헤겔은 감각과 정서를 엄밀하게 구별하지만 둘 모두 감각이라 부른다. 여기서 정서와 다른 감각이란 외부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의 감정 뿐이다.

(나)

음악이 어떻게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는가? 헤겔은 음악이 다른 예술 형식과 달리, 직접적인 언어적 의미 없이도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감정이 단순한 주관적 느낌으로서의 것이 아니라 정신의 발전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예술작품 속에 내재된 감정이 객관적 진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음악이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환기론과 인지론이 있다. 환기론에 따르면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음악이 인간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환기론자들은 말한다. 반면에 인지론자들은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서사 구조를 가지는 교향곡에는 시작, 절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존재하여 우리가 이를 듣게되면 표현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헤겔 예술철학에서 음악은 낭만적 예술에 속한다. 고전적 예술과 달리 낭만적 예술은 실재적 개인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주관성을 최고의 원리로 간주한다. 헤겔에 따르면 주관성은 현존을 통해 ‘자연스런 인격’이 되는데, 유사하게 낭만적 예술이 표현하는 정서적

감정은 음악이나 시, 회화 등의 기호를 통해 전달된다. 먼저 음악은 회화나 시와 마찬가지로 낭만적 예술이지만 회화와 달리 공간을 부정한 예술이다. 회화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 행위와 상황을 묘사한다면 시는 감정 그 자체를 세밀하게 서술한다. 만약 회화가 시의 전략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추상으로의 퇴보일 것이다. 각 장르는 본연의 위치에 걸맞게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감정의 움직임 자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회화가 추구하는 모방과는 구별되면서도 시와 비교한다면 그 표현 방식은 더 추상적인 것이다.

헤겔은 음악을 ㉠ 구성적 측면과 ㉡ 예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음악의 구성적 측면이란 음이 예술을 구성하기 전에 가지는 추동력을 가리킨다. 이 힘으로 인해 청취하는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나와 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음은 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상적 내면성으로서 ‘자아’를 의미한다. 감상자로서의 주체 개념이 사라지므로 동일화된 자아는 음에 대해 전혀 반성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음악이 예술적 국면에 돌입하면 그제서야 청취하는 나와 청취되는 음이 구별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음과 나의 직접적 동일성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아가 갖는 느낌은 자극으로서의 나의 떨림, 즉 비정서적 감정밖에 없지만 이러한 무규정성은 예술로서의 음악에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은 감정과 달리 감각질을 공유하지 않는다.
- ②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절차를 거치면 무규정적 느낌이 생긴다.
- ③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분도 느낄 수 없다.
- ④ 인간과 동물은 모두 신체화를 통해 자기를 의식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⑤ 토끼와 같은 피식자가 포식자를 보면서 느끼는 본능은 감각에 대한 주체의 반응에 해당한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음이 갖는 힘 때문에 음이 자아와 동일시 된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② ㉡은 음악이 낭만적 예술로서 기능을 하는 순간 음의 무규정성이 사라진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청취하는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에서 음과 직접적으로 동일화된 나는 고통이나 기분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 ⑤ ㉡에서 음을 청취하는 나는 예술로서의 음악에 대해 비판이나 반성을 수행할 수 있다.

6.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입장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키비는 음악적 기호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테두리 이론을 주창했다. 먼저 그는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때 내는 소리와 음악이 비슷하다고 전제했다. 다음으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인간 행위의 시각적 이미지는 음악을 통해 재현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교향곡은 소설과 같은 플롯을 지니는데, 이러한 음악을 낭만적 예술로 볼 수 있는는 이유를 행위의 모방에 의거하여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키치는 말한다.

- 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한 데서 환기론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겠군.
- ② 음악이 인간 행위의 재현한다는 특질을 지닌다는 데서 인지론의 주장과 상충하겠군.
- ③ 낭만적 예술에 속하는 음악을 매개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서 헤겔의 주장과 상충하겠군.
- ④ 음악이 낭만적 예술로 분류되는 이유를 회화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추상으로의 퇴보라고 헤겔은 키비를 비판할 수 있겠군.
- ⑤ 음악을 회화와 동일한 위계로 설정한다면 그 표현 방법이 시보다 구체적이어서 음악 본연의 위치를 잃게 된다고 비판받을 수 있겠군.